

主題

하나로통신 현황

하나로통신(주) 두 원 수

차 례

- I.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선도 기업
- II. 초고속인터넷 기반 회사
- III. IMT2000 사업 추진
- IV. 하나로통신 무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계획
- V. 나스닥 상장

I.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선도 기업

1. 시장 환경 변화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지난해 말까지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1086만명이라고 밝혔다. 이제 우리나라 인구 4명 가운데 1명이 인터넷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인구 1000만명 시대가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 정보교류나 엔터테인먼트, 쇼핑 등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교육, 문화, 산업, 금융, 정치에 이르는 사회 전반 활동이 인터넷의 영향력 안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터넷 인구의 증가세는 가히 폭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94년 국내 보급이 본격화된 인터넷은 첫째 15만명에 불과하던 이용인구가 95년에는

40만명, 96년에는 80만명으로 매년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한해 동안 1,000만명에 가까운 이용인구가 늘어났다.

이러한 인터넷 보급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대중화이다.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두루넷, 드림라인 등이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시장은 멀티미디어 인터넷 콘텐츠의 대폭 확대와 다수 사업자의 본격적인 시장참여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올 한해 200만 가입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2005년에 전체 전화가입자의 6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 확대 현황

하나로통신은 작년 4월 서울, 인천, 부산, 울산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서비스 지역을

넓혀 현재 전국 14개 도시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나는ADSL」의 경우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제공돼 왔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전주, 목포, 청주, 춘천, 창원, 진주, 포항, 제주 등 40개 도시에 추가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올 연말까지는 총 54개 도시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

하나로통신은 이같은 서비스 지역의 대대적인 확장을 통해 우리나라 총 1천550만 가정의 45%인 약 690만 세대를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이를 계기로 사업개시 1년만에 전국을 커버리지로 하는 국내 초고속인터넷 접속 선도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타 경쟁사의 CATV망을 이용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하나로통신의 CATV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일정 가입자 수가 충족되면 셀을 확장·분할하는 방법으로 빠른 속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광주CATV를 인수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지역 확장을 위해 힘쓰고 있다.

300세대 이하의 아파트나 일반 주택, 빌라에도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무선가입자망(WLL) 서비스와 기업대상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인 광대역무선가입자망(BWLL) 서비스가 올해 중반기에 시작되면 지역 및 대상 한계로 인한 어려움을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품질위주로 차별화된 상품을 제공하고 신속한 개통/장애처리 체제를 갖추고, 다양한 인터넷 관련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여 편리한 통신생활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II. 초고속인터넷 기반 회사

1. 시장 환경 변화

국내 정보통신산업은 매년 13%씩 성장하여 향후 2005년에는 GDP의 27%에 달할 전망이며, 특히 유무선 시장은 정체 내지 퇴조되는 반면, 인터넷 관련시장은 2005년 국내 전체 정보통신시장의 6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산업은 인터넷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주도하고 있으며, 2010년에 이르면 인터넷 관련시장이 국내 전체 정보통신시장의 80%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우리 사회는 사이버 경제 시대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다.

따라서, 초고속인터넷망과 초고속멀티미디어서비스를 통합·제공하는 종합인터넷사업자가 되지 않고서는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번 하나로통신의 기업변신은 기회선점적 대응을 통해 뉴밀레니엄 시대에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시장을 리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사이버 플랫폼(Cyber Platform) 추진 현황

하나로통신은 올해 초 세천년을 맞아 기존 초고속인터넷 및 음성전화 서비스 위주의 사업구조를 초고속인터넷망(ADSL)을 기반으로 한 웹호스팅(Webhosting),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사이버 금융 및 경매, 인터넷방송 등을 신규 핵심사업으로 하는 「사이버 플랫폼(Cyber Platform)」 회사의 변신을 선언하고 나섰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도 연평균 29%씩 증가, 2005년에는 전체 전화가입자의 6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하나로통신은

급속히 성장하는 국내 인터넷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초고속인터넷망과 초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통합·제공하는 「사이버 플랫폼」 회사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로통신은 올해 3대 중점경영목표를 ● 초고속인터넷 시장 선도사업자로서의 위상 확보, ● 초고속 멀티미디어 콘텐츠 및 e-Business 사업 강화, ● IMT-2000 사업권 획득 및 신기술 개발로 정했다.

하나로통신은 「사이버 플랫폼」 회사로 발전하기 위해 「나는ADSL」과 「CATV 초고속인터넷」 등 「초고속인터넷 접속서비스」와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어플리케이션호스팅(ASP), 웹호스팅 등 「접속성 부가서비스」를 기반사업으로, 사이버금융 등 전자상거래와 인터넷방송 및 교육 등 콘텐츠, 종합포털/리눅스포털 등 커뮤니티를 하나로 엮는 「인터넷 응용서비스」를 전략사업으로 각각 육성, 발전시켜 국내 제1의 인터넷 종합통신회사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3. 사이버 플랫폼 사업 분야

하나로통신은 이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접속서비스」 등 기반사업은 자사가 직접 전담 하되,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과 관련된 각종 콘텐츠 및 커뮤니티 등 전략사업은 미국 휴렛팩커드 등 국내외 관련업계 최고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하나로통신은 우선 「나는ADSL」, 「CATV 초고속인터넷」 등 「초고속인터넷 접속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지역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 작년 말 현재 전국 14개 도시에서 올해부터는 전주, 목포, 청주, 춘천, 창원, 제주 등 54개 전국 주요도시

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하나로통신은 또 초고속인터넷망(ADSL)을 활용, 고속서비스가 필요한 기업을 위해 웹서버, 라우터 등 기업 전산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해 주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와 전자메일/결재, 전자적자원관리(ERP), 종합고객관리(CRM), 전자상거래 솔루션 등 각종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해 임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호스팅(ASP)사업도 중점 추진키로 했다.

하나로통신은 이를 위해 최근 세계적인 e-Business 선두기업인 미국 휴렛팩커드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1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유치, 2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되, 3월에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어플리케이션호스팅(ASP), 인터넷트래픽 교환센터(IX), 벤처보육센터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인터넷 종합통신 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다.

하나로통신은 이와 함께 올 한해동안에는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응용서비스」 분야에서 종합포털, 리눅스포털, 웹투폰, 인터넷방송 등 10개 중점 프로젝트를 선정, 고품질의 다양한 신규 멀티미디어서비스를 개발, 제공해 기존 서비스와 완전 차별화해 나갈 계획이다.

하나로통신은 우선 ▲서울방송(SBS),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재테크, 정보기술(IT) 등 특화된 콘텐츠를 생방송 또는 주문형 비디오(VOD)로 제작, 서비스하는 인터넷 방송국을 설립 운영하고, ▲産銀캐피탈을 비롯, 국내 유수의 인터넷 관련기업 4~5개사와 공동으로 2천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단계적으로 조성, 우선 사업 첫째인 올해에는 약 1백억원을 검색 / 영상처리 / 접속 / 보안 / 전자상거래 / 게임 / 커뮤니티 등 인터넷

관련 유망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하나로통신은 이와 함께 지난 1월부터 새롬기술과 공동으로 시작한 웹투폰(WebtoPhone) 방식의 다이얼패드 서비스를 통한 무료 시내/시외/국제 전화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올 한해 접속료 수익을 2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비스 개시 첫날 방문자와 가입자의 폭주로 인하여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따라서, 예상을 초월한 가입자수와 사용자 수의 증가로 1월말까지 150만명의 가입자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확장 작업을 마쳐 현재 가입자 100만명이 이용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에서 웹투폰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조체계를 통한 설비증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타 통신사업자와도 상호 협조 관계 속에서 더욱 많은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제전화 구간도 미국 이외에 주요국가까지 확장하고 이동통신과의 연계도 추진하고 있다.

하나로통신은 또 ▲해외 우수 포털(Portal)기업과 합작사 설립을 통해, 개인홈페이지 자동생성 등 개인 포털기능을 강화한 멀티 콘텐츠형 종합포털 구축 ▲국내 벤처기업 리눅스원과 공동으로 한글·영어를 망라한 광범위한 리눅스(Linux)관련 정보제공은 물론 소프트웨어까지 판매하는 리눅스포털 구축 ▲국내 벤처기업 디지털벨리와 제휴, 인터넷 사이트, 기업, 영화, 음악 등의 인기를 네티즌이 직접 결정하는 주식거래방식의 웹스닥(WEBSDAQ) 및 경매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하나로통신은 특히 ▲자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국 1천개 이상 아파트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지자체 민원업무 및 일상 생활 관련 정보서

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광고 및 쇼핑물 연계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가상공동체포털인 사이버타운 사업을 대림산업 등 건설회사 주도로 설립된 아이시티로 및 벤처기업인 코스모정보통신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하나로통신은 이 밖에 ▲홈쇼핑, 재테크, 부동산, 건강 등의 회원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상거래 사업을 우체국을 비롯한 머천다이지, 우체국 등 유통/불류 전문업체, 금융기관 등과 합작 추진하는 한편 ▲은행, 보험 및 증권사와 제휴한 사이버 금융사업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속 가능한 이동(Mobile) 포털 구축 등의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인터넷사업 분야에서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네트워크 기반사업인 인터넷데이터센터와 웹투폰, 인터넷방송 등이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는 e-Business의 선두기업인 미국 휴렛팩커드의 기술과 1억달러의 자금을 이용하여 국내 최고수준의 인터넷 종합통신센터로 육성할 방침이다.

4. 사이버 플랫폼 전망

하나로통신은 우선 2001년까지를 초고속인터넷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사업 초기단계로 보고 초고속 가입자망, 첨단통신기술, 차세대 인터넷 기반기술, 글로벌 정보통신업체와의 파트너십 등을 결집시켜 「사이버 플랫폼」 기업으로써 핵심역량을 집중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 고객욕구, 사업자간 경쟁구도의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뉴밀레니엄 시대에 하나로통신은 기업 변신을 통해 사업구조를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인터넷사업으로 고도화·집중화함으로써 아시아지역 최고의 인터넷 전문회사로 성장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통신과 방송의 통합, 매체와 서비스가 통합되는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 혁명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를 가진 회사,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e-Business 및 각종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 모두가 이 물결에 동승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초고속인터넷망과 초고속멀티미디어를 모두 통합할 수 있는 사이버 플랫폼(Cyber Platform) 기업이라는 점에서 하나로통신 만의 차별성이 존재한다. 향후 국내에서 인터넷 관련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은 하나로통신과 유형·무형의 관계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III. IMT2000 사업 추진

1. IMT-2000 서비스 정의

IMT-2000 서비스는 단순히 음성서비스 위주의 2세대 이동통신의 연장이나 진화가 아니라 유선망부분과 무선망부분의 인프라, 기술력 및 운용능력 등이 복합된 새로운 개념의 유무선통합에 의한 차세대 유무선 종합 멀티미디어 서비스이다.

2. 한국IMT-2000(株) 컨소시엄 구성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기술개발 제휴협정('99. 6.)
- 세종대와 공동으로 IMT-2000 석사학위 과정 개설('99. 9)
- 하나로통신, 온세통신, 10개 무선호출사업자, 3개 TRS사업자와 '한국 IMT-2000(株)' 컨소시엄 구성('99. 10)
- 벨연구소(루슨트 테크놀로지스 산하 연구기

관)와 IMT-2000 기술협력 MOU 체결('99. 10)

에릭슨과 IMT-2000 기술협력 MOU 체결(2000. 1)

정보통신중소기업협회(PICCA)와 전격 제휴(2000. 2)

하나로통신은 온세통신을 비롯 15개 기간통신사업자들과 IMT-2000사업 컨소시엄인 '(가칭)한국IMT-2000(株)'을 지난해 9월에 구성하였다. 또한 한국IMT-2000(株)은 이미 작년 6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그리고 10월에는 미국 벨연구소(Bell Labs)와 각각 IMT-2000 기술개발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으며, 지난 1월6일 세계 최대의 통신장비업체인 스웨덴 에릭슨(ERICSSON)과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IMT-2000과 관련된 동기 및 비동기 기술과 장비개발을 위한 기반을 모두 갖추게 돼 IMT-2000 사업준비를 본격화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최근 정보통신중소기업협회(PICCA)소속 200여개 벤처기업이 컨소시엄에 합류하게 됨에 따라, 냉철상부한 정보통신업계를 대표하는 그랜드 컨소시엄의 위용을 갖추게 되었다. 이와 함께 올해말 사업권 획득후, 한국IMT-2000의 본금 2조원중 1조원을 컨소시엄 참여사가, 나머지 1조원은 국민주 발행을 통해 조달하여, 사업의 혜택을 온 국민과 함께 나눌 예정이다. 특히 이 컨소시엄은 앞으로 특정 기업에 편입되지 않는 소유와 경영이 완전 분리된 국민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IMT-2000을 준비중인 경쟁기업들 대부분은 소유 구조가 명확함으로써 추진력이 있어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한국IMT-2000(株) 컨소시엄은 컨소시엄에 참여한 주주 모두가 주체라는 전제로 움직이고 있으며 향후 유무선 기간통신사업자, 중소, 중견기업, 건전한 대기업 등이 포함된 그랜드 컨소시엄

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여러 기업이 모였지만 세부 추진은 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실무추진위 등을 통해 착실히 진행될 것이다.

컨소시엄 참여업체 모두 기간통신 시장에서 아직 뚜렷한 지위를 찾지 못했다는 우려도 있으나 온세통신이나 하나로통신 등 참여 업체 중에 신생기업에 가깝지만 기술력이 뒷받침된 성장성이나 잠재력만 큼은 충분하다. 다만 참여업체 중 지역무선호출사업자의 경우 통신시장 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IMT-2000 사업에 성장성과 잠재력을 갖춘 기업과 통신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국내 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앞으로도 한국IMT-2000(株) 컨소시엄은 IMT-2000 획득과 관련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기술 및 인력, 시설, 통신사업 경험 등 각종 유무형의 자원을 하나로 결합,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것이다.

3. 한국IMT-2000(株) 컨소시엄의 현황 및 전망

현재 IMT-2000사업권 획득에 나서고 있는 경쟁 주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소유와 경영이 뚜렷한 데 반해 한국IMT-2000(株) 컨소시엄은 그랜드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돼 있다.

이 그랜드컨소시엄은 운영 주체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또는 정부의 편중 논란과 관련해서는 의외의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그랜드컨소시엄이 결국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으며 현 정

부의 대기업 정책과도 연결시켜 나갈 경우 상당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사업자 선정후 전체 자본금의 50%에 해당하는 1조원을 국민주 발행을 통해 확보하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 천명은 이 같은 타 후보와의 차별점을 시사한다.

IMT-2000이 21세기 최고의 유망사업임을 전제한다면 그 수익이 많은 기업체나 국민에 팔고루 나눠져야 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 한국IMT-2000(株) 컨소시엄은 자격을 갖췄다. 또한 한국IMT-2000(株) 컨소시엄은 국가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타 경쟁 사업자들은 현재 한국IMT-2000(株) 컨소시엄을 두고 무선호출이란 무선계가 존재하지만 IMT-2000 서비스와 관련된 핵심 무선운용기술 경험이 있는 이동전화사업자의 부재를 약점으로 거론하고 있으나, 최근 유럽 국가들이 기존 2세대 이동전화사업자 이외의 신규 사업자에게 IMT-2000사업권을 보장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현재 세계적인 흐름이다.

한편 최근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 중소기업 모임인 정보통신중소기업협회(PICCA)가 한국IMT-2000(株) 컨소시엄과 제휴키로 전격 합의, 한국IMT-2000(株) 컨소시엄이 유력 주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PICCA 소속 회원사 200여개 업체는 한국IMT-2000(株) 컨소시엄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이번 합의로 PICCA와 한국IMT-2000(株) 컨소시엄은 IMT-2000 요소 기술, 단말 기술, 시스템 기술, 응용 소프트웨어 기술, 멀티미디어

어콘텐츠 및 ASIC 기술 등에 대해 공동연구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며 한국IMT-2000(株) 컨소시엄은 이들이 보유한 우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현정부의 중소기업 우대 정책기조와 연계시켜 볼 때 PICCA를 영입한 한국IMT2000(株) 컨소시엄은 연말로 예정된 사업자 선정과 관련 가장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타 경쟁 사업자들의 사업권 획득을 위한 행보도 빨라지게 될 전망이다.

IV. 하나로통신 무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계획

1. BWLL 서비스

1) BWLL 서비스 개요

BWLL(Broadband Wireless Local Loop)은 26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광대역 무선 가입자망으로 음성과 초고속 인터넷, 멀티미디어, 전용회선 서비스 등이 가능한 첨단 무선통신서비스로서, 기존의 이동통신 기술과는 달리 매우 높은 수십GHz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며 고정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런 양방향 광대역 무선가입자망 시스템은 주로 24~28GHz의 주파수를 이용한다.

현재 BWLL은 대략 기지국에서 반경 5Km내외의 가입자를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제공 가능한 실질적인 전송속도는 1~7Mbps정도이다.

2) 하나로통신 BWLL 서비스 제공 계획

하나로통신은 금년도 4월 1일부터 시범서비스를 거쳐 서울 25개 행정구를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상

용서비스를 개시한다. 제공대상은 유선망(FTTO)으로 진입이 곤란한 10층 이하(300인 이하) 빌딩, 연구소, 공장, SOHO, 게임방, 학교 및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이다. 하나로통신은 BWLL 서비스를 통하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 시장 전망

(출처: KISDI)

분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가입자 (천명)	13	46	73	109	155	398

2. WLL 서비스

1) WLL 서비스 개요

「무선가입자망(WLL:Wireless Local Loop)」이란 통신사업자의 통신망과 컴퓨터 및 전화기 등 고객의 가입자장치를 2.3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연결, 고속인터넷과 전화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속 무선망 시스템이다.

WLL 시스템은 1대의 기지국장치와 기지국제어기, 가입자 댁내에 직접 설치되는 가입자접속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가정에는 고속인터넷과 전화 1회선 또는 전화 2회선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다회선 가입자접속장치는 LAN 방식 고속인터넷 1회선과 최대 8회선까지의 전화를 제공한다.

2) 하나로통신 WLL 서비스 계획

을 5월부터 아파트 지역이 아닌 단독, 연립주택과 같은 일반 가정에서도 무선으로 고속인터넷과 전화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나로통신은 국내 최초로 비동기 CDMA 방식

의 무선가입자망(WLL) 장비 개발을 최근 완료하고, 시험운영이 끝나는 3월부터 서울 마포 및 송파 지역 600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에 들어간다.

하나로통신은 올해 말까지 WLL 서비스의 고속 인터넷 제공 속도를 현재의 115.2Kbps급에서 384Kbps급으로 높여 가입자망의 초고속화 추세에 부응하고, 고속인터넷과 전화를 동시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원격검침, 카드검색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함께 개발,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로통신은 서울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5월부터 상용서비스를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서울, 인천, 부산, 울산지역 단독 또는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서비스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WLL은 향후 차세대 이동 통신기술로 예상되는 IMT-2000의 기반 기술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3년에는 전세계 WLL 가입자가 1억명을 돌파할 것이며, 특히 통신 인프라가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시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장래에 하나로통신도 WLL기술을 통해 국내장비업체와 함께 중국, 동남아시아 지역 등 해외 통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V. 나스닥 상장

1. 나스닥 상장 추진 현황

지난 3월 29일 성공적인 상장을 통해 하나로통신은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 HP로부터 1억달

러를 유치한 것과 같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추가 외화 유치도 기대되고 있어, 큰 어려움 없이 투자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2. 국내 정보통신주 전망

근래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인터넷 관련주의 급등으로 비롯된 국내 정보통신 기업의 주가 폭등은 가장 큰 화제거리이다. 모 인터넷 기업의 시장 가치가 국내 증권 그룹 서너개를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나 과대 평가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이제 기업의 가치를 보는 기준이 달라져야 할 때이다. 20세기 산업경제사회에서는 자산규모, 매출액, 시장 점유율 또는 ROI, 투자이익률 등 유형자산을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했다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브랜드 가치와 테크노 헤게모니 등 기업의 무형 자산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이 미국 최대의 서점 유통망을 가진 "반스앤노블스"를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시대에 한발 앞선 벤처기업이 국내 유수의 대기업을 앞지를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일본에 비해 제조업 경쟁력에 내놓았던 세계 자본주의 종주국으로서의 자리를 정보통신산업으로 대표되는 소프트 산업의 부흥을 통해 되찾을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 주식시장의 인터넷 기업에 대한 과열 논쟁도 전세계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1) 하나로통신 개요

구분	내용
설립일	'97. 9.23
코스닥 등록일	'98.11.11
서비스 개시일	'99. 4. 1
대표이사 사 장	申允植(63세) 서울대 문리대 졸업
결산기	12월 31일
종업원수	880명(11월15일 현재)
주요주주	데이콤10.73%, 삼성 9.81%, 현대 8.74% SK 8.34%, 대우 5.39%, 두루넷 5.28%
매출구성	초고속인터넷(ADSL 및 CATV) 75% 시내전화(음성) 25%

2) 하나로통신 재무재표 (단위:백만원)

구분	'97	'98	'99
자본금	600,411	920,061	1,200,000
매출액	0	99	23,119
영업이익	0	-19,887	-140,306
경상이익	7,650	36,776	-77,423
당기순이익	7,642	29,466	-70,901
부채비율	1.61%	15.33%	20.24%

3) 경쟁력

하나로통신이 개발, 제공하는 상품은 ▼전화 한 회선으로 음성통화와 초고속 인터넷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전화국에서 고객(아파트, 빌딩)의

통신실까지 전 구간을 광케이블로 연결, 깨끗한 음성품질과 전송속도가 최고 8Mbps로 기존 전화선보다 최고 1백배 이상 빠른 것이 기존 서비스와 가장 다른 점이다.

또한 ▼국내 최초로 상용화된 TDX-100급 이상의 최첨단 디지털 교환기와 선진국에서도 상용화 초기에 있는 초고속 데이터용 ATM 교환기를 이용, 음성망과 데이터통신망을 분리해 운영하기 때문에 생기는 인터넷 접속실패나 사용자 증가시 전송속도가 떨어지는 기존 전화망의 불편을 완전히 해소한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같은 통신망의 특징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업체가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점으로, 통신서비스의 품질로 그대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는 가입자가 점차 늘어 통신망에서의 트래픽이 증가할 경우 더욱 큰 차별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요금대비 월 이용료 측면에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업체에 비해 다소 저렴하게 책정돼 있어 가격경쟁력 면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조직 인력에 대한 비용절감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아웃소싱을 최대한 활용키로 하고 서울 10개소를 포함 전국에 16개 고객센터를 두고 영업과 개통, 장애치리를 하고 있다.



두원수

1986년 울산공대 기계과 졸업
1986년~1989년 월간 컴퓨터·매경 PC저널 취재부
기자
1986년~1990년 (수)STM (現 LG-EDS) 홍보팀
1990년~1997년 (주)데이콤 홍보실
1997년~1999년 하나로통신(주) 홍보실장 부장
2000년~現在 하나로통신(주) 홍보실장(이사대우)